

현대비평론 중간과제

부제 : 은유와 환유 개념에서 라캉의 이해로

2014130069 박찬희

* 목차

- 1) 서문
- 2) 은유와 환유
 - a. 은유 개념
 - b. 환유 개념
 - c. 은유와 환유의 관계
- 3) 라캉의 이해
 - a. 은유와 증상, 증상과 은유
 - b. 환유와 욕망, 욕망과 환유
 - c. 증상과 욕망, 은유와 환유
- 4) 맺음말

1. 서문

이번 과제의 주제는 바로 ‘은유와 환유’이다. 은유와 환유는 비유의 핵심적인 두 중추이다. 비유는 문학을 읽을 때 의미 전달에 중요한 부분이고, 낱아빠진 단어들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흥미로운 개념이다. 이 교재를 접하기 전에도 문학작품을 읽을 때면 시, 소설을 막론하고 작가의 표현 기교나 비유법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곤 했다. 그러나 수업 중에 막상 ‘비평’의 관점에서 과연 무엇이 은유이고, 무엇이 환유인지 자문해보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난해함을 느꼈다. 은유는 ‘A는 B이다’라는 고루한 공식으로 표현될 뿐이었고, 환유는 이름만 들어봤을 개념이었을 뿐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처럼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무지에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되면서 수업에 빈번히 등장하는, 앞으로도 더 자주 등장할 은유와 환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다.

즉, 이 과제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은유와 환유’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립’이라는 말은 부적절하긴 하지만, 적어도 학자들이 공유하는 모종의 합치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포착하고 싶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사학을 정립해온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으나,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연구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관점이 너무나도 상이했으므로 초점을 하나로 통일하여 정리해보고 싶어졌다.

결국 교재로 돌아와 제3장, 그중에서도 라캉의 ‘은유와 환유’ 개념으로 눈을 돌렸다. 정신분석학적 비평은 무엇보다 무의식적 기표들을 분석하여 작품 속의 숨은 의미를 파악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중에서도 라캉의 이론이 가장 난해하면서도 설득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비록 걸음마 수준이지만 라캉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고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은유와 환유’에 대해서 공부해보았다.

2. 은유와 환유¹⁾

a. 은유 개념

은유 개념에 대해서 가장 원론적인 주장을 펼친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는 은유를 어떤 사물에 다른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때에 이름이 전이되는 방식에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중에서도 ‘유추를 근거로 한다’는 부분에 주목한 학자들이 치환 이론, 비교 이론을 발전시켰고, 이에 반대하는 L. A. 리처즈와 같은 학자는 상호작용 이론을 주장했다²⁾. 그중에서도 조지 레이코프, 마크 존슨 등이 주장한 개념 이론은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의 개념 체계가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라는 그들의 입장은 은유가 단순히 표현 기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수사학을 그저 장식치레로만 여기던 과거의 입장으로서는 결코 상상도 못할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적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사유하고 행동하는 양식 그 자체가 은유의 과정을 따른다면 이를 분석해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또는 발화의 의미 속에 숨어있는 의미도 발견해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은유의 본질적 특성으로 돌아와서, 앞서 등장한 여러 학자들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은유가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관련짓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때에 의미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그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의미의 전이는 은유 말고도 반어, 역설, 상징 등의 경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러나 저자는 은유는 다른 수사법과 다르게 두 개념이 서로 다른 층위에 속할 때에만 발생한다고 구분 짓는다. 즉 두 개념어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성과 차별성이 발생하고, 이 두 성질을 바탕으로 의미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저자가 은유의 조건으로 차별성 또한 중요시했다는 점이다³⁾. 너무 유사한 두 개념어를 은유로 표현하면 그 의미는 쉽게 퇴색되어 버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두 개념을 엮었을 때는 쉽게 와 닿지는 않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했을 때의 효과는 오히려 극대화된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표현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좋은 은유란 유사성과 차별성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환유 개념

환유는 앞서 논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을 인용하자면, 종개념과 유개념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환유의 개념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은유의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보았다. 이후로도 환유는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은유에 비해서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왔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르자 로만 야콥슨과 같은 학자들이 묻혀있던 환유개념을 발굴해낸다.

환유는 본질적으로 은유와 유사하다. 어떤 표현으로 다른 표현을 대체한다는 점이나, 일상의 대화와 소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점,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그러한

1) 본 논의에 참조한 책은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1999 이다.

2) 김옥동, 앞의 글, 102-1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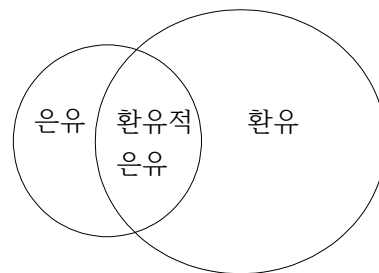
3) 김옥동, 앞의 글, 115면

다. 환유 역시 언술의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인 것이다. 이 둘은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대개는 환유를 은유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이론가 야콥슨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어찌됐든 환유는 같은 개념의 범주 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은유와 다르다⁴⁾. 즉, 인과관계, 상하관계, 부분과 전체관계, 시공간적 연관관계 등 서로 인접한 두 개념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념적으로 이러한 관계들이 ‘인접성’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도, 반대로 이미 드러난 표현을 토대로 그것이 환유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제법 설득력 있는 구분점을 내놓았다. 은유에서 의미가 전이가 일어나는 반면에, 환유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 화용론자 H. 폴 그라이스의 ‘질의 격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화의 맥락을 헤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조의 원리’를 지키는 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환유는 은유보다 친절한 비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c. 은유와 환유의 관계

은유와 환유의 관계를 따질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학자가 바로 로만 야콥슨이 아닐까 싶다. 계열과 통합, 선택과 배열, 유사성과 인접성, 수직과 수평, 이것이 곧 그가 말하는 은유와 환유이다. 그는 언어학자답게 은유와 환유 개념을 문장의 형성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가령 특정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개념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은유의 능력이고, 선택된 개념어들을 배열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은 환유의 능력이다⁶⁾. 그런데 만약 문장의 형성이 환유와 관련된 범주라면, 대부분의 문학적 표현은 어느 정도 환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단순히 단어의 나열만으로는 문학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둘은 포함 관계라기보다는 집합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이때 원의 크기가 중요도나 가치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렇게 표현한 것은, 은유가 특수한 표현이라면 환유는 보편적 표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환유적 은유는 환유로부터 비롯된 은유를 의미한다. 반대의 경우인 은유로부터 비롯된 환유는 좀처럼 존재하기 힘들다⁷⁾. 환유를 거친 표현은 아직 원래 개념과 동일 범주 안에 머물러있으므로 비교적 수월하게(원래의 은유작용처럼) 다른 개념의 울타리로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이미 다른 울타리로 넘어가버린 개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환유해버리면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4) 김옥동, 앞의 글, 192-193면

5) 김옥동, 앞의 글, 198면

6) 오형엽, 『문학과 수사학』, 소명출판, 2011, 66~68면.

7) 김옥동, 『은유와 환유』, 193면

3. 라캉의 이해⁸⁾

a. 은유와 증상, 증상과 은유

라캉의 입장은 다른 어느 학자보다도 독특하다. 그의 입장에서 은유는 불완전한 언어를 통해서 억눌린 무의식이 스스로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이미 드러난 표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전개시켰던 기존의 수사학과는 달리 표현하는 주체의 무의식을 중점적으로 파고든다는 점 때문에 그의 이론이 처음에는 다소 수사학과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앞서 보았던 개념 이론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수사학과 정신분석학이 언어라는 접점을 통해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무의식 속 의미는 새로운 기표로 끊임없이 대체되고, 이는 증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캉은 이를 은유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의 은유개념은 유사성을 전제하지 않는다⁹⁾. 즉, 은유는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다른 기표를 대신해서 집어넣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정리해왔던 은유개념을 모조리 뒤집는 발언이다. 이때의 은유는 다른 수사법과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은유는 증상이다’라는 명제를 뒤집어 말하면 ‘증상은 은유다’가 된다. 즉, 은유는 증상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모든 언술행위에 무의식의 욕망이 담겨있다고 본다면, 즉 증상이라고 본다면 이때의 은유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작가가 ‘의식적인’ 노력을 곁들여 제시한 표현도 은유라고 볼 수 있을 테고, 사소한 말실수도 은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b. 환유와 욕망, 욕망과 환유

라캉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바로 욕망이다. 욕망은 결여를 전제로 한다. 무의식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본연의 욕망을 언어의 형식을 빌려 표출하려 한다. 그러나 언어는 기의를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므로 오히려 의미의 생략과 결핍을 발생시킨다. 라캉은 이 과정을 환유라고 보았다. 우리의 욕망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원래의 의도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의 기표와 새로운 기표 사이에는 의미의 저항선이 존재하고, 그것을 넘는다 해도 의미는 그만큼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라캉의 이러한 설명은 환유가 ‘질의 격률’에 충실하다고 했던 그라이스의 설명과 상충한다. 환유가 끊임없이 결핍과 생략을 수반한다면 의사소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핍된 표현은 그 자체에 해답을 품고 있는 수수께끼와도 같다.

은유에 있어서 유사성을 배제한 것과 달리, 라캉은 환유가 여전히 인접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기본적으로 환유에 대한 입장은 앞선 논의에서 이어져왔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무의식적 욕망은 결국엔 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출발한 관념에서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본래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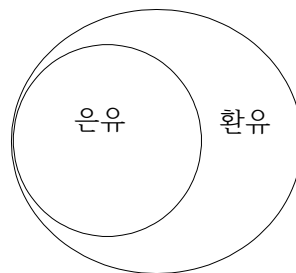
8) 라캉의 기본적인 개념어와 은유·환유 개념을 익히기 위해 여러 서적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참고한 서적은 다음과 같다: 정과리, 「정신 분석에서의 은유와 환유」, 『은유와 환유』(『기호학 연구』 제5집), 문학과 지성사, 1999, 11~23면; 김인환, 「언어와 욕망」, 『비평의 원리』, 나남, 1994, 255~278면; 이승훈, 「언어와 욕망」과 「자아 해방의 방향」, 『라캉으로 시 읽기』, 문학동네, 2011, 12~60면; 아니카르메르, 「무의식의 형성물들을 구성하는 기제들 : 전치와 압축 혹은 환유와 은유」,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4, 275~295면; 오형엽, 「정신분석 비평과 수사학」, 『문학과 수사학』, 66~89면

9) 오형엽, 『문학과 수사학』, 77면

미가 생략되고 결핍되더라도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에 환유는 본래의 의미를 결손시키는 동시에 두 관념을 여전히 단단히 묶어주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c. 증상과 욕망, 은유와 환유

a와 b를 종합해보면, 은유는 무의식이 새로운 기표로 대체되는 것이고, 환유는 이때 두 기표 사이에서 결핍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은유와 환유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개념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은유가 쓰인 개념은 필연적으로 환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체는 결핍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선 논의에서 ‘환유적 은유’는 있어도 ‘은유적 환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듯하다. 이제 앞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은유는 환유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 은유를 환유의 부분집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지금까지 구분해왔던 은유와 환유의 특성을 모두 무시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유는 환유적이다’라는 표현은 일리가 있다. 은유된 표현은 적어도 한번 환유를 거친 셈이기 때문이다.

은유와 환유의 관계를 통해 증상과 욕망의 관계도 조망해볼 수 있다. 앞서 대체가 결핍을 수반한다는 명제에 따르면, 증상이 욕망을 수반한다는 명제도 옳은 셈이 된다. 즉, 무의식의 표출로서의 증상은 결국에는 욕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문학텍스트분석에 적용한다면, 특정 인물의 행동 양상을 증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행위의 깊은 층위에 숨어있는 욕망의 기제를 발견함으로써 그 인물의 무의식, 즉 진정한 주체의 모습 혹은 자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처음에는 교과서에서 보던 친숙한 개념이었던 은유와 환유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일반적인 의미의 은유와 환유를 구분하는 나만의 구체적인 기준선이 생겼다는 것이다. 은유와 환유라는 두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고 축소하기를 반복하면서, 닮은 듯 상반되는 두 수사법의 관계에 주목해가면서 학자들의 성과를 검토해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특히 라캉이라는 학자의 매력적인 연구를 다룰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는 보다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그의 이론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어졌다.